싸이, 4년 만에 '라디오스타' 출연…컴백 초읽기

가수 싸이가 활동을 재개한다. 싸이는 최근 극비리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 예능프로그램 출연도 앞두고 있다. 싸이는 16일 진행되는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다. 2012년 '강남스타일'을 발표한 직후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지 햇수로 4년만이다.



곽동연 "아직은 가발 써야 알아보려나"

〈사극 분장〉



'구르미'로 떴다

곽동연·김유정

연기자 곽동연(19)과 김유정(17)은 아역으로 연기를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성공을 이끈 주역이다.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학창시절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여유는 없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들의 꿈에 다가갔다. 두 사람은 어떤 내일을 내다보고 있을까. 스포츠동아가 차례로 만났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무 살인 연기자 곽동연(왼쪽)과 고교생 연기자 김유정은 최근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성인 연기자로 성장할 순탄한 길을 예고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사진제공 | 싸이더스HQ

김유정 "치맥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아역 굴레 '구르미' 통해 어느 정도 해결
들뜨지 않아 다행…스무살 알차게 보내

곽동연

"스무살을 알차게 꽉꽉 채워 보내고 있다."

곽동연은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12년 중학생 때 처음 연기를 시작해 햇수로 5년차인 그는 '구르미 그린 달빛'(구르미)에서 왕세자 이영(박보검)의 호위무사 김병연 역을 맡아 시청자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바라고 바랐던 "어린 이미지"에서도 벗어났다. 드라마가 종영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났지만 곽동연을 향한 관심은 이제 '첫 회'다.

"활동하며 관심을 받게 될 순간을 생각해왔다. 설레고 벅찰 줄 알았다. 하지만 들뜨지 않아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책임감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학생 때부터 고향인 대전에서 상경해 홀로 지내왔던 탓일까. 말 한마디에서도 의젓함이 진하게 묻어난다. "나쁜 어른보다 착한 어른을 더 많이 만나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미소를 짓는다. 부모님도 어린 아들을 혼자 보낼 생각에 걱정이 컸지만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 얻는 게 있을 것"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곽동연은 그렇게 홀로 서울에서 꿈을 향해 달렸다. 혼자 생활하다보니 다른 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 취미로 등산, 낚시, 사진 촬영 등을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피보다 진한 형제애"를 나눈 친구도 별로 없다. 쓸쓸함이 컸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린' 이미지가 박히는 게 가장 겁"났고 언제, 어떻게 '성인 연기자'로 넘어가야 할지 늘 고민해온 시간 덕분이다.

곽동연은 "'구르미' 전까지 이제는 (드라마에서)교복을 입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아역'이라는 굴레에 갇혀 벗어나기 바빴다"며 "하지만 '구르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스스로를 얽매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모든 부담을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다. 드라마 종영 직후 필리핀 세부로 포상휴가를 다녀온 그는 "대중을 만날 기회가 적어 체감은 못하지만, 드라마 속 가발을 써야 알아볼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곽동연은 1시간 남짓 이야기를 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스물의 초입에 들어선 그는 여느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술 맛"이 궁금하고 "'19금' 영화를 극장에서 당당히 관람"하고 싶은 것도 지극히 평범한 '위시리스트'였다.

"마셔봤는데 맛있더라.(웃음) 위스키와 보드카가 맞는 것 같다.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마셔봤는데, '뒤끝'이…. 아! '19금' 영화는 '당당히'다. 집에서 안 봤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 하하!"

곽동연의 머리는 오늘도 빠르게 돌아간다. '구르미'의 김병연이 평소 이미지트레이닝을 통해 만들어온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미지의 인물과 만남을 기다리며 그는 방안에서 의사, 형사, 사이코패스도 되어 본다.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곽동연

▲1997년 3월19일생 ▲2015년 서울공연예술고 졸업 ▲2012년 KBS 2TV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데뷔 ▲2012년 제6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아역상 ▲2014년 KBS 2TV '감격시대:투신의 탄생'의 김현중 아역으로 주목 ▲2014년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 ▲2014년 SBS '모던파머'로 첫 주연 ▲2016년 SBS '돌아와요 아저씨', 케이블채널 tvN '피리부는 사나이'

운전면허 따고 음악 틀고 드라이브 꿈
'구르미'와 함께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김유정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유정은 또 한 단계 성장했다. 적어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활약상을 지켜본 시청자에게는 이미 '어른'이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아닌 온전히 한 캐릭터를 맡아 한 편의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이끌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끝나버린" 이 순간이 그저 속상할 뿐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시원? 섭섭하기만 하다. 출연진, 스태프와 많은 정이 들었다. 평생 보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도 받았다. '구르미'와 함께한 시간은 잊기 싫지만 잊을 수도 없다.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어도 간직하겠다."

하지만 출연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기도 했다. "자신감이 없어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불신은 "믿어준 팬들과 주위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힘을 냈다. 그렇게 7월부터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10월 차가운 가을바람을 이겨냈다.

그 보상은 추억만이 아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에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다. 김유정은 "캐릭터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아쉽고 잘 못한 부분을 깨달아 다음 작품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확실히 알았다"고 자신했다.

5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방송국을 오간 김유정은 이제 스스로 길을 넓혀갈 수 있는 위치에 다가서고 있다. '구르미'를 통해 그를 바라보는 대중과 방송가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욱 높은 곳을 향해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연기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두렵고 무서웠다. '구르미'를 촬영하면서 느꼈지만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연기에 더욱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회피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

극중 홍라온이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연기하며 받은 영향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연기 습관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선 "나와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 틀을 깨고 나오기 위한 선택 역시 여간 쉽지 않다. 이럴 때마다 부모의 "조급해 하지 말라"는 조언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을 먼저 했으니 좋은 경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다방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눈치가 빠르다는 장점? 하하!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는 나이보다 성숙하다는 말이 좋지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교복 입고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친구들과도 추억을 쌓고 싶은 고2 소녀이기도 하다.

그리고는 '스무살 김유정'에 대해 "한강에서 즐기는 '치맥'.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중고차를 구입해 음악 크게 틀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며 웃었다.

김유정

▲1999년 9월22일생 ▲고양예술고 2학년 재학 중 ▲2003년 과자 CF모델로 데뷔 ▲2006년 MBC '베스트극장-새끼곰의 미소'에서 첫 연기 ▲2010년 MBC 연기대상 아역상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의 한가인 아역으로 연기력 인정 ▲2012년 MBC 연기대상 아역상 ▲2012년 '메이퀸'과 2013년 '황금무지개' 통해 주연급 발돋움 ▲2016년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스타어워즈 신인상

'차세대 한류스타' 박보검, 아시아 훑는다

내달부터 아시아 팬미팅 투어 돌입

차세대 한류스타의 예정된 행보다.

박보검(사진)이 국내 연예계를 장악한 뒤 이제 본격적인 해외 입지 구축에 나선다. 이민호, 김수현, 송중기를 잇는 또 다른 한류스타의 움직임을 해외 팬들도 반기고 있다.

'응답하라 1988'(응팔)에 이어 '구르미 그린 달빛'(구르미)까지 연타석 홈런을 친 박보검은 12월부터 아시아 투어에 돌입한다. 앞서 4월 대만에서만 팬미팅을 진행한 것과 다르게 이번엔 아시아 각 나라로 발걸음을 넓힌다.

2일 현재까지 투어 일정이 확정된 곳은 홍콩. 박보검은 12월8일 홍콩에서 '박보검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박보검은 4월 '응팔' 프로모션 차원에서 홍콩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팬미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보검은 '구르미'가 국내에서 방송할 당시 인기를 얻으며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팬미팅 요청을 꾸준히 받아왔다. 현재도 홍콩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추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프로모션의 한 관계자는 2일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제의를 받고 있다. 규모도 예상보다 크게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협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검은 아시아 투어에 나서기 전에는 11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여행을 겸한 화보 촬영을 진행한다. 박보검의 소속사 측은 "연말부터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면서 차기작도 고를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엄태웅,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엄태웅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앞서 7월 엄태웅은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였던 마사지 업소 종업원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업주 B씨와 공모해 엄태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보성 부인도 소아암 어린이 돕기 모발 기부

배우 김보성에 이어 그 부인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모발을 기부했다. 2일 한 관계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삭발한 남편에 이어 그의 부인도 3년간 기른 모발 35cm를 잘라 소아암 어린이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성은 9월 6일 소아암 환아에게 선물할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 15개월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종합격투기 로드FC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김보성은 12월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공정성 논란 대종상 영화제 올해 개최 불투명

올해 대종상 영화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예정대로라면 대종상은 올해 53회째를 맞지만 11월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사무국은 "12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 영화제는 크고 작은 부침을 겪어왔고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배우에게 상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배우와 영화인이 대부분 불참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종석, 이성경과 의리 '역도요정' 특별 출연



연기자 이종석(사진)이 동료 이성경과 나눈 친분에 힘입어 MBC 새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에 특별출연한다. 이종석은 16일 방송을 시작하는 '역도요정 김복주'에 깜짝 등장한다. 자신과 무관한 드라마나 영화에 카메오로 참여하지 않았던 이종석이 '역도요정 김복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성경과 쌓은 친분이 작용했다. 모델 출신인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는 역도선수에게 찾아온 첫사랑을 그린다. 이성경과 남주혁이 주연을 맡았다.

▮ 빅마우스

● **"최수종과 차인표처럼 속 썩이지 않는 남자가 좋다."(가수 왁스)** 2일 방송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결혼적령기가 지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상형을 공개하며.

● **"실제로 요즘 '진짜'가 없지 않나. 보기 드물게 정의로운 드라마다."(연기자 서현진)** 2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

● **"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길!"(누리꾼 woog****)**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이 방송·연예계까지 미치고 있다는 기사의 댓글에서.

책 랭킹

1위 책 정보보기

10월 19일~10월 25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1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2	자존감 수업	윤홍균
3	낭만적인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알랭 드 보통
4	나에게 고맙다	전승환
5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
6	블로노트	타블로
7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백영옥
8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9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10	빙하는 움직인다	송민순